MWC 2026 서 중국 기업 기술력 주목

현장에서 중국 브랜드 룽야오(荣耀·Honor·아너)의 '로보트 폰'을 시연하고 있는 직원

중국 기업들이 에스빠냐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6'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다수 글로벌 모바일 어워드를 수상한 한편 인공지능(AI), 5G 어드밴스드, 위성통신 분야에서도 혁신 기술을 선보였다.

MWC 2026 최우수 모바일 네트워크 인프라상으로는 화웨이의 'UWB AAU 시리즈' 기지국 제품이 이름을 올렸다. 중국모바일과 화웨이는'AI+네트워크' 운영 프로젝트로 최우수 AI 네트워크 솔루션상을 공동 수상했다. 중국텔레콤과 화웨이는 스마트폰과 정지궤도 위성간 직접 련결 기술로 최우수 NTN 솔루션상을 받았다.

산업 응용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중국모바일, 화웨이, 앤트그룹이 공동 추진한 디지털 헬스 어시스턴트 프로젝트는 최우수 커넥티드 헬스·웰빙 모바일 혁신상과 모바일 접근성·포용성 부문 최우수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중국통신, 중흥(中兴·ZTE), 지원로보트(智元机器人·AgiBot), 탁익득(卓益得·DroidUp)은 휴머노이드 로보트 네트워크를 지원하는'EasyOn 5G-A-RobotNet' 프로젝트로 최우수 프라이빗 네트워크 솔루션상을 받았다.

디바이스 분야에서는 중국 브랜드 룽야오(荣耀·Honor·아너)가 MWC 개막에 앞서 '로보트 폰'을 공개했다. 룽야오는 스마트폰에 적용한 실리콘-탄소 배터리 기술로 파괴적 혁신 디바이스상도 수상했다.

미래 기술 방향을 제시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 화웨이는 아틀라스(Atlas) AI 컴퓨팅 플래트홈, ZTE는 5G 어드밴스드 네트워크와 산업용 프라이빗 네트워크 기술을 소개했다. 샤오미는 AI 기반 스마트 디바이스 련동 기술을 시연했으며 레노버는 단말 디바이스에서 AI와 혼합현실(MR)을 결합한 기술을 공개했다.

중국 통신사들도 위성통신, 클라우드·네트워크 통합, 인텔리전트 네트워크 운영 분야에서 기술 발전상을 선보였다. 닥터 스크랩 등 스타트업 기업들은 AI와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스크랩 재활용 분야의 순환경제를 촉진하는 기술로 주목을 받았다.

한편 이번 MWC에는 전세계 이동통신사, 장비제조업체, 반도체 기업, 인터넷 기업 등 약 3,000개 업체가 참가해 미래 통신의 흐름을 이끌 최신 기술과 응용 써비스를 선보였다.

/ 신화넷

AI, '인간'으로 되기까지 얼마나 걸릴가?

많은 사람들이 한번 쯤은 품어본 의문이 있다. AI가 진정한 '인간'이 되기까지 얼마큼의 시간이 남았을가? 우리 나라 연구팀이 개발한 CATS Net는 AI가 인간의 개념 형성과 교류를 실현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연구자들은 돌파구는 있지만 여전히 넘기 어려운 격차가 존재하며 단기내에 '인간과 같은 완전한 지능'을 실현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우선 AI와 인간의 행동에는 핵심적인 차이점이 있다. 중국과학원 자동화연구소 뇌지도 및 뇌모방 지능 실험실 연구원 여산(余山)은 CATS Net가 개념을 추출하고 전달하는 능력은 본질적으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것이며 인간처럼 세상을 리해하고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인간지능(人类智能)의 핵심은 종합성과 유연성에 있는바 이는 현재 AI가 극복하기 어려운 령역이다. 여산은 CATS Net는 개념 차원에서 돌파구를 마련했으나 여전히 시각 인식 과제에 한정되여있으며 인간과 같이 개념, 감정, 기억, 경험을 깊이있게 융합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인간의 지능은 성장성과 적응성을 지니고 있는 반면 AI '지능'은 사전에 설정된 알고리즘과 훈련 데이터에 의존한다. AI는 인간처럼 스스로 성장하는 능력이 없으며 경험으로부터 반성하거나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다. 또한 훈련 범위를 초과하는 상황에서는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가치관과 륜리적 판단 역시 AI가 복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 AI가 인간의 가치관에 부합되게 하는 방법은 여전히 향후 해결해야 할 주요 난제로 남아있다.

결국 "AI를 진정한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아의식, 감정인지, 종합인식 등 일련의 핵심 난제를 돌파해야 한다." 여산은 아마도 미래에는 AI가 더 많은 령역에서 인간의 행동을 모방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인간처럼 의식과 주관적 경험을 가질 수 있을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이 또한 인간지능의 가장 독특하고 가장 소중한 부분이다."라고 강조했다.

/ 신화넷

할리우드 발칵! 영화산업 뒤흔든 '시댄스 2.0'

무너진 건물 옥상에서 톰 크루즈와 브래드 피트가 치렬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주먹을 날리고 감정이 격해져 큰소리로 말싸움까지 하고 있는 이 장면은 할리우드의 새 액션 영화를 방불케 한다. 하지만 이 영상이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닌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전세계가 충격에 휩싸였다.

중국 소셜미디어 회사 바이트댄스(字节跳动)가 얼마전 동영상을 제작하는 AI '시댄스(Seedance) 2.0'을 출시했다. '시댄스 2.0'은 몇줄의 명령어로 영화 수준의 뛰여난 영상을 생성한다. 누구나 유명 배우의 사진과 목소리를 활용해 그들이 출연한 것처럼 보이는 영상을 간단히 만들 수 있다. 영화감독처럼 장면이나 카메라 각도를 다양하게 조정할 수 있으며 음향 효과도 추가가 가능하다. 배우들의 대사와 행동은 어색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표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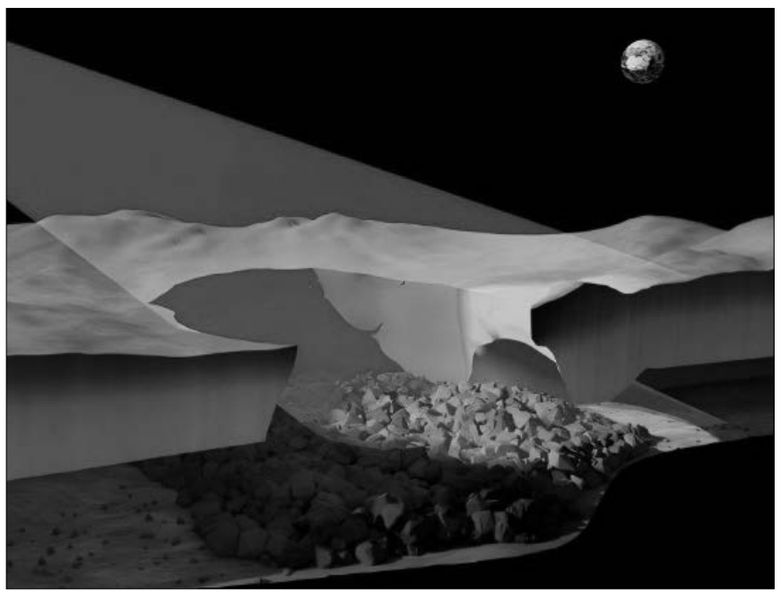
한편 오픈 AI의 소라나 구글의 Veo와 같은 동영상을 만드는 AI가 존재하지만 시댄스는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뛰여난 영상을 만든다. 오픈 AI의 '소라(Sora)'는 10초짜리 영상을 제작하는 데 약 1딸라가 소요되지만 시댄스는 약 0.6딸라로 충분하다. 이는 비슷한 수준의 영상을 절반에 가까운 가격으로 제작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격 경쟁력은 지난해 저렴한 개발비로 뛰여난 성능을 보여줬던 국내 AI 딥시크를 떠올리게 한다. 이에 '딥시크 쇼크'를 련상시키는'시댄스 쇼크'라는 표현도 등장했다.

세계 영화산업의 중심지인 할리우드는 이번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다. 시댄스는 현실과 똑같은 영상 제작을 넘어서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담은 '재미 있는 영상'을 창조한다. 례를 들어 "두 사람이 싸우는 장면을 만들어줘."라고 입력하면 기존 AI는 단순히 싸우는 모습을 생성하는 데 그쳤지만 시댄스는 싸움의 배경과 이야기, 대사까지 창출해 낸다. 이로 인해 특별한 기술 없이도 누구나 영화를 제작할 수 있다. 영화 '데드풀'을 쓴 각본가 렛 리스는 시댄스를 보고 "우리(할리우드)는 끝난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 종합

금성 지하서 거대 용암 동굴 발견

- 우주선이나 탐사 로보트 기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이 측면도는 금성 표면 아래에서 탐지된 동굴을 보여준다. / 과학기술넷

태양에서 두번째로 가까운 행성인 금성, 최근 이딸리아 트렌토대 연구진은 금성 표면 자료를 분석해 지름 1키로메터, 높이 375메터, 길이 최대 45키로메터에 이르는 거대한 용암 동굴을 발견했다.

금성은 지구와 비슷한 크기를 가졌지만 환경은 전혀 다르다. 금성의 하늘은 두꺼운 이산화탄소로 가득차 있으며 황산 구름이 이를 덮어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다. 그 결과 금성의 표면 온도는 약 470도에 이르고 압력은 지구의 90배에 달한다. 이러한 극한 환경 때문에 금성으로 보낸 탐사선들은 착륙하더라도 몇시간 밖에 버티지 못한다.

그러나 이번 용암 동굴의 발견은 금성 탐사에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주었다. 동굴 안으로 탐사선을 보내면 두꺼운 암석층이 열과 압력을 차단해 탐사선이 보다 오랜 시간 활동할 수 있다. 과학자들은 이 동굴을 우주선이나 탐사 로보트 기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성의 극한 환경에 대한 연구는 지구온난화의 원리를 파악하고 지구의 기후변화를 더 잘 리해하고 대비하는 데 기회를 제공한다.

/ 종합

'지구의 청소부' 발광 곰팡이, 그 정체는?

빛나는 은하수 아래 초록빛으로 반짝이는 발광 곰팡이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한가? 발광 곰팡이는 주로 말라죽은 나무에서 자생하는데 그 신비로운 모습 때문에 '유령'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실제로 발광 곰팡이는 나무의 영양분을 섭취하여 나무를 썩게 만드는 동시에 썩은 나무에서 나오는 물질을 빛나는 성질로 변화시킨다. 과학자들은 이 생물체가 자신을 먹이로 삼으려는 동물이나 곤충을 위협하기 위해 빛을 발산한다고 추측하고 있다.

2,000년전,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발광 곰팡이를 '차가운 불'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곰팡이는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생명체중 하나로 식물이나 동물과는 다른 '균류'에 속한다. 이 곰팡이는 죽은 동식물을 분해하여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지구의 청소부'라는 이름을 얻었다.

/ 종합